

# 유소연, LPGA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

### 연장전 끝에 렉시 톰슨 누르고 생애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 2014년 캐나다인 퍼시픽 우승 이후 953일만에 통산 4승 달성

유소연(27·메디힐)이 생애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며 31개월 만에 정상에 올라 오랜 우승 갈증을 풀었다. 유소연은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70만 달러) 최종일 연장전 끝에 렉시 톰슨(미국)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US여자오픈 우승에 이어 생애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이다. 2014년 8월25일 캐나다인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무려 953일(2년7개월7일) 만에 통산 4승째를 달성했다. 우승을 추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쉽지 않은 우승이었다. 유소연은 3라운드까지 선두 렉시 톰슨(미국)에 3타 뒤진 공동 3위로 최종 라운드에 임했다. 경기 막판까지 3타를 줄이며 선두를 추격했지만 톰슨이 11번홀까지 4타를 더 줄여 17언더파로 1위를 질주했다. 최근 5개 대회에서 준우승만 3차례 했던 유소연은 이렇게 또 다시 준우승에 머무는 듯 했다. 그러나 12번홀(파4)을 앞둔 톰슨이 경

기위원으로부터 무려 4벌타를 받았다. 전날 17번홀(파4)에서 볼마킹 후 공을 제지리에 놓지 않는 실수가 뒤늦게 확인되며 2벌타 후 스코어카드 오기로 2벌타를 또 받았다. 순식간에 4타를 잃은 톰슨의 복수 체제가 끝나며 유소연을 비롯해 박인비(29·KB금융그룹), 수잔 패테르센(노르웨이) 등이 우승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됐다. 박인비가 마지막 18번홀(파6)에서 파에 그치며 13언더파가 됐고 유소연은 버디에 성공하며 14언더파 단독 선두로 마쳤다. 톰슨과 패테르센의 경기 결과에 따라 연장 승부내지 우승이 결정되는 상황이 됐다. 버디 4개로 4언더파를 쳐 함께 14언더파 27타로 경기를 마친 유소연은 동타를 이룬 톰슨과 18번홀(파6)에서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첫 번째 승부 만에 우승자가 결정됐다. 유소연은 티샷이 페어웨이에 안착한 반면 톰슨은 러프로 갔다. 톰슨의 두 번째 샷이 그린에 한 참 모자란 반면 그린 바로 뒤쪽으로 보낸 유소연이 유리해졌다. 유소연은 3번째 칩샷을 홀컵 1m 앞에

보냈고, 버디에 성공하며 파에 그친 톰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로 연속 대회 컷 통과 기록을 60경기로 늘린 유소연은 시즌 상금랭킹 1위를 질주했고, CME 글로벌 레이에서도 1위에 오르며 시즌 초반 LPGA 투어를 이끌었다. 유소연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7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2015년 이후 가장 무서운 초반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톰슨은 통탄의 실수를 범한 상황에서도 경쟁심을 발휘하며 끝까지 우승 경쟁을 벌였지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박인비는 13언더파로 이민지, 패테르센 등과 함께 공동 3위를 했다. 양희영(28·PNS창호)은 9언더파로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등과 함께 공동 8위를, 박성현(24·KB하나은행)과 전인지(23) 등은 5언더파 공동 14위로 첫 메이저 대회를 마쳤다. /김민근 기자

유소연은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70만 달러) 최종일 연장전 끝에 렉시 톰슨(미국)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 슈틸리케 감독, '유입' ... 러시아 월드컵까지

올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계속해서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3일 경기도 파주 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슈틸리케 감독을 유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 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예선 A조에서 이란(승점 17)에 이어 4승1무2패(승점 13)로 본선 직행이 가능한 조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일 선보이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축구팬들의 신뢰를 잃었다. 시리아전이 끝난 뒤에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당장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졌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슈틸리케 감독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유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24일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슈틸리케 감독의 계약 기간은 러시아 월드컵까지다. /김민근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쇼트트랙·피겨 '인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1차 온라인 예매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쇼트트랙과 피겨가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상 종목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달 9일부터 개·폐회식을 비롯해 각 종목별 입장권 판매 목표치의 60~80%에 대해 1차 온라인 예매 신청을 진행 중이다. 총 118만장의 올림픽 입장권을 발행하는 조직위는 이 중 90%인 107만장(국내 75만매·해외 32만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체 판매 목표의 37.7%인 40만8000여장이 예매 신청된 상태다. 국내 32%(23만9000여장), 해외는 51.5%(16만4000여장)다. 조직위는 3일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개회식과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예매 신청은 이미 1차 배정 물량의 100%를 초과 달성했다.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83%, 폐회식 78%, 스키점프 30% 등으로 예매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순창군 유소년 야구단 창단

### 초등학교 학생 20여명 규모 전문 감독·코치 영입

순창군이 유소년 야구단을 창단하고 아이들이 미래 메이저리거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 순창제일고야구장에서 선수와 학부모 유소년야구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창군 유소년 야구단을 공식 창단했다. 이번엔 창단한 순창군유소년 야구단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20여명 규모로 전문 감독과 코치도 영입해 아이들에게 야구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게 된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과 평일 하루정도 체계적 훈련 시간을 갖고 공식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아이들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바른 정신을 갖고 성장할수록 돕기 위해 이번에 유소년 야구단을

창단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군이 전국규모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유소년야구팀 창단으로 대회 유치 타당성확보는 물론 지역 대표스포츠 육성 사회 야구인 기반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순창군은 지난 2월 전국에서 76개 팀이 참여한 2017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1천여명이 넘는 선수단과 500여명의 임원 및 선수단 학부모들이 참여해 전국대회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순창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의 민박 펜션 등 숙박업소와 음식점 편의점 등 골



목상권에도 큰 도움을 줘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받는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는 지역 여론이다. 이날 창단식에 참석한 황숙주 군수는 유소년야구단원들에게 야구 용품을 전달하면서 "여기 모인 어린이들이 미래에 메이저리거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소년 야구단을 창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야구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키우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는 학생들이 되 주기를 바란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순창=이양원기자

### 고창군협회장배 배구대회 '성료'

2017 고창군협회장배 배구대회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고창군립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체육관에서 고창군 배구협회(회장 윤영식) 주최·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1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장명식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남자부 15팀, 여자부 5팀 등 선수단과 임원, 가족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윤영식 고창군배구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순창 등 여러 지역의 동호인도 참가해 고창군협회장배 배구대회가 더욱 규모 있는 대회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배구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배구를 즐기고 사랑하시는 동호인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상호간 의의와 친목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배구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결과 남자부 우승은 남원배구클럽, 준우승은 정읍배구클럽, 공동3위는 군산배구클럽, T.O.P클럽이 차지했으며, 남자2부 우승은 미래배구클럽, 준우승은 신항배구클럽이 여자부 우승은 익산배구클럽, 준우승은 정읍다봉클럽이 각각 차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